

“월급은 제자리인데... 점심 먹기 겁난다”

고물가시대 도내 직장인들 '점심값 고평행진' 비명 “사실상 실질임금도 줄어... 도시락 싸오는 동료 많아” 푸드기업 가격 분석... 제주 9037원으로 전년비 6% ↑

직장인 김모(37)씨는 약속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고 다닌다. 갈수록 오르는 외식비에 점심식사 값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했던 점심시간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매일 한끼에 대략 1만원 가까이 쓰는 점심값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 그는 “요즘 1만원으로 점심 사먹는 것도 어렵다. 주변에도 점심값

부담에 혼자 나가서 점심을 해결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며 “월급은 제자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덩달아 오른 점심값에 직장인들의 부담이 여전하다. 물가가 계속 뛰며 주요 외식품목 가격도 줄줄이 올라 직장인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면서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기준 제주지역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평균 실질 임금은 29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 총액에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임금을 말하는 데, 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식비 관련 물가 상승은 각종 통계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달 도내 외식비 가격 동향을 보면 1인분 기준 삼계탕 가

격은 평균 1만4250원으로 1년 사이 7.5% 올랐다. 칼국수는 9500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자장면은 6750원으로 12.5% 각각 상승했다. 비빔밥은 9250원으로 8.8%, 김치찌개 백반은 8750원으로 7.7% 각각 뛰었다. 김밥 가격은 3000원으로 9.1% 올랐다. 삼겹살 가격(200g)은 1만6500원으로 1년 전보다 8.2% 상승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최근 자사 서비스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점심값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지역 평균 식대 결제금액은 903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522원)보다 6.0% 올랐다. 이 기간 16%나 오른 전국 평균 가격(9633원)보다는 낮았다. 백승기

제주 최근 3년 화물선사고 38건 발생

해경-도내 해양관련 기관 선사 대상 사고 예방 컨설팅

제주 해역을 오가는 화물선 안전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경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화물선 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 운영,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운회사와 화물선 등 현장 지도·점검·교육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 기항한 화물선은 연평균 154척으로, 해운회사 21곳에서 41척의 화물선을 운항하며 총 7850회 운항했다. 대형 화물선 운항과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귀포항에 입항하던 2000t급 화물선 A호가 강한 돌풍으로 인해 선체 일부가 항만시

설물과 새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서쪽 1.3km 해상에 항해 중이던 3000t급 국내 화물선 B호(승선원 8명)의 좌현 및 방향키 부근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38건의 화물선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도내 관계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선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해사 법령 교육 및 사고사례, 예방 착안사항 공유 ▷선박 밀도가 높은 통항로·연안 해역 안전 운항 방법 ▷오염물질 처리 및 해양오염 예방 조치 요령 ▷선박 서류 및 관리방안 교육 ▷항해·통신·기관설비 점검 등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전 여친 폭행 30대 체포

전 여자친구의 집에 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뒤를 쫓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 안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영기자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 13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뒤 도청을 찾아 오 지사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가동 중이던 세탁기 화재

단독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세탁기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58분쯤 제주시 일도1동의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옥실에서 가동 중이던 세탁기에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 거주자가 세탁기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자체 진화했다. 김도영기자

“日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막아야”

청소년기후평화행동 회견... ‘오영훈 지사 대응’ 촉구

제주 청소년들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제주도정이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

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투기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일

본이 핵오염수를 투기한다면 제주도 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행동은 “오 지사는 핵오염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제주도를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이나 끝장토론을 해 봤나”라며 “오 지사는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계획 철회를 위해 강력하게 촉구하고 정부와 연대해 이행시키라”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화순항 피항 중인 어선 선저폐수 무단배출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3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을 적발, 신속하게 방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쯤 화순항 내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를 방지했고, 인근 선박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사진 현장조사 중 화순항에 피항 중이던 어선 A호(30t, 여수선적)에 대해 선박 정밀검사와 탐문을 실시한 결과,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 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 약



60ℓ를 해상으로 배출했다는 외국인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 선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금탁기자

선원 3명 복어독 중독

조업중 잡은 복어를 먹고 마비 증세 등을 보인 선원 3명이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4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잡은 복어를 먹은 선원 3명(50대 2, 60대 1)이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전날인 12일 저녁으로 복어를 먹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912-202-9)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 약 탐빛1호, 선경, 전문생산 주문생산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과 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원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병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